캠프, 무엇을 먼저 생각할까?

조현옥 · 세실리아 | 서울대교구 초등부 주일학교 교사연합회 연구원

부산한 5월에 이어 숨가쁜 6월이 되었습니다.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성소주일, 성모의 밤……. 5월은 여러 행사가 많아 부산하게 보냈습니다. 그러나 한 숨 돌리기도 전에 '여름 신앙학교' 라는 큰 행사를 앞두고 또 다른 준비로 바빠질 것입니다.

여름 신앙학교나 캠프를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이 행사를 잘 치르기 위한 교구 연수에 참여하여 이를 바탕으로 본당에 잘 맞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일입니다. 그러나 교사들이 많은 시간을 투자하여 회의도 하고 선배 교사들의 의견도 들어가며 의욕에 찬 프로그램을 만들더라도 '어, 작년이랑 별로 틀린 것도 없잖아.' 하는 실망스러운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는 어린이들과 함께할 수 있는 좀더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 기본적으로 무엇을 생각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본당에 가장 알맞은 프로그램 만들기

2박 3일 또는 3박 4일간의 여름 신앙학교 교안을 만들기 위해선 기획 연수의 불놀이, 물놀이 등과 같은 레크리에이션 자료와 어린이들에게 특별한 신앙 체험의 기회를 주기 위한 교재 연수 내용, 개인적인 경험 등을 참고하여 프로그램을 만듭니다. 그러다 보니 교구 내 본당들이 모두 비슷한 프로그램으로 신앙학교가 진행되기 쉽습니다. 물론 교구에서 준비한 기획연수 프로그램과 신앙학교 교재를 각 본당에서 사용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각 성당마다 처한 여건은 다릅니다. 첫째 운동장 여부, 강당 여부, 교실의 크기와 같은 고정적인 시설 요건, 둘째 OHP, 슬라이드, 프로젝트, VTR 등 시청각 장비 구비 여부, 셋째 성당이 위치한 장소 즉 주택지, 공장 주변, 시장 등 주위 환경 요건은 모두 다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여건은 어린이들에게 좀더 쉽고 효과적으로 교리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것들이며, 세 번째 요인은 자신이 맡고 있는 주일학교 어린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어떠한 부분에 초점을 맞춰 교육을 해야 하는지를 정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요소입니다.

신앙학교뿐 아니라 주일 교리를 할 때 교사들은 자신이 속한 성당의 여러 가지 외부 환경 여건들을 고려하여 어린이들에게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어린이들에게 접근하는 프로그램 만들기

여름 신앙학교와 캠프를 준비하면서 교사들이 제일 신경을 쓰고 어려워하는 점은 '어린이들 모으기' 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늘 비슷한 내용의 프로그램과 형식 때문(게임과 노래 그리고 야외 수영장에서의 물놀이 등)이며, 또한 교리교육이라는 신앙적인 부분만 빼면 다른 캠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내용들로 채워졌기 때문입니다.

다른 캠프에서는 줄 수 없는 즉 교회만이 줄 수 있는 신앙적인 내용과 함께 다른 캠프에서 흔히 경험할 수 없는 차별화된 무엇을 줄 수 있어야만 어린이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입니다.

교재 교육이 접목된 캠프 프로그램

현재 각 본당에서는 4학년 이상 고학년 어린이들에게 신앙학교를 참여하게 하기보다는 캠프를 참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계절에 맞게 산과 바다 또는 자연학습장 등으로 2박 3일(또는 3박 4일) 동안 캠핑을 하도록 하는데, 프로그램은 대부분 야외 놀이나 물놀이, 불놀이 등 놀이를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린이들이 무더운 여름을 시원하고 재미있게 보낼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에서 하는 프로그램인 만큼 '신앙' 이라는 면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해서 캠프를 하면서도 교리교육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구에서 준비한 여름신앙학교 교재는 주일학교에서 하기 어려웠던 것들을 중심으로 심화 교육을 하도록 짜여 있습니다. 3일 동안 같은 주제를 다룸으로써 교리교육의 깊이를 심도 있게 하고 어린이들이 좀더 성숙한 신앙인으로 나갈 수 있는 디딤돌의 역할을 합니다.

성당 캠프에서 신앙 교육이 빠진 프로그램은 의미가 없습니다. 즐거운 놀이와 게임 그리고 교재 교육이 함께 어울린 여름 캠프를 기대해 봅니다.

'쉼(휴식)' 이 있는 프로그램

'쉼이 있는 프로그램' . 성당에서 여름 신앙학교를 하든 외부로 나가 캠프를 하든 공통된 점은 프로그램에 맞춰 어린이들을 움직인다는 점입니다. 하나의 프로그램이 끝나면 곧바로 다른 프로그램이 기다리고 있어 어린이들이 끊임없이 움직이도록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연속적인 프로그램은 어린이들에게 '재미와 보람' 대신 지치고 피곤하고 재미없는 기억을 남길 것이며 무엇보다도 2박 3일 동안의 행사를 진행하는 교사들도 무척 지칠 것입니다.

이번 여름신앙학교와 캠프에서는 어린이들에게 자신만의 시간을 갖도록 해 주면 어떨까요? 자연 속에서 친구들과 선생님과 이야기도 나누며 나무 그늘에 누워 잠을 잘 수 있는 여유를 통해 그 동안의 스트레스도 풀고 자연 속에 계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청하시오,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찾으시오, 얻을 것입니다. 두드리시오, 여러분에게 열어 주실 것입니다"(루가 11, 9).